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 제 26 회 정 기 총 회 개 최

— 총회기구 개정안 통과 헌법개정위에 위원

1970년10월14, 15일 경 도교회당에서 제26회 정기총회가 소집되어 금년에는 제2년 임기에드러선 총회임직원의 지난 일년간의 사업보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일년간의 새계획들을 열의 토의 하였다. 내빈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환수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박경룡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배성근목사 일본NCC총간사 中島正昭목사등의 다채한축사가 있었다. 청년회대표 최승구중앙위원의 보고와 재일한국인기독교자로서 차별제도와외의 투쟁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할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한다는 발언에따라 총회내청년회의 위치와 본질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년국장과 오윤태이인하세목사를 지도위원으로 선정하여 위탁 하였다. 성도교회담임목사로 취임케된 홍동근목사와 북해도선교사로 파견된 이성주목사의 총회가입을 허락하여 총회석상에서 헌법규례를 따라 가입식을 집행 하였다. 헌의안으로 (신도교회장으로 일명증원승인 청원 후세교회장으로일명장립승인 경도교회장으로일명증원승인 하판교회장으로일명증원승인 오리오교회장으로 2명장립승인 시나가와교회장으로일명장립승인 동경교회장으로일명증원승인 각각 청원을 허락가결 하였다. 우베교회 목사관건측 비보조요청 (재요청)을 보 조순서에 급한 사정을 인 증하는 것으로 허락 하였다. 가와사기교회 의장 내제혁인 교회당과 보육원새건설에 관 한 1972년도보조500만원요청 을 허락 하였다.

중부지방회의 헌의안 세 가지문제는 임직원회에 일임 하였다. 여자장로 독신 장로에 관한 헌의안을 장 시간토의한 후에도 성립 되 지못했다.

이번총회헌의안중 가장 중 요하고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혁신을 기할만한 기구개정 안에 관하여 선교국에서 연구한 개정초안을 드러 축조검토하여 가다가 이왕 의 팔국을 사국으로 축소 하고 사국속에 활동분야를 기능적으로 정하는 것과 임직원회구성과 임직원선거 규정건 교역자인사이드건 교역자와 장로의 시무연한안 연속집사의 처우안등을 통 과하여 이를 실시하는때는 헌법이 개정 되어야 하므로 모든 개정안을 총회헌 법개정위원회에 일임 하였 다. 보조교회교역자생활비통 일안과 퇴직금규정안을 승인

하고 모든 조사와 실시를 총무와 재정위원회에 일임 하였다. 끝으로 재일대 한기독교회의 특수적위치에 있어서의 담당하여야할 사 회책임 역사책임을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 극히 양 심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사회 책임에 대한 태도표명」을 성문화하여 선포 하였다. 이상과 같이 총회기구개정 사회책임 태도표명등 획기 적인 내용이 풍부한 제26 회 총회를 마쳤다.

## 성 명 문

在日大韓基督教會 第26回 總會에 모인 우리들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日本社會에서 福音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날 日本의 特定한 社會狀況에서 在日韓國人61萬民族이 앞날의 方向을 模索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最近 進展 되고 있는 事態에 깊은 關心을 가지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社會責任에 關한 態度를 表明한다.

1968年 우리들은 在日大韓基督教會宣敎60周年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라는 標語로 이것을 記念해 왔다. 이 標語가 意味하고 志向하는 바는 過去 우리의 教會가 걸어온 歷史를 이끄신 하나님 의 攝理의 役事를 感謝하면서 우리의 宣敎基本 姿勢가 福音信仰의 歸結로 서 그리스도人들은 그 자 는 社會에 變革을 이룩할 責任있는 役割을 가지고 있음을 確認한 것이다.

우리는 걸어온 過去를 反省할 때 社會에서 그리스도人으로서 보람있는 증 거의 生을 갖지 못한 것 을 切實히 告白하는 바

이다.

마침내 在日韓國人61萬 同胞들은 각자의 政治的인 立場에서 永住權 獲得運動、 國籍變更 運動등을 展開하 며 앞날의 길을 각자가 模索하고 있다. 우리 在日韓國人 그리스도人들은 61萬 同胞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歷史的 背景과 우리 同胞가 피땀을 흘리 면서 이 社會에서 犧牲하 고 貢獻한 바를 생각할 때에 永住權은 在日韓國人 61萬 누구에게나 付与되 어져야 할 正當한 權利임을 主張하는 同時에 주어지는 永住權이 在日 同胞들이 要求하는 內容을 갖춘 것 이 되기 위하여 積極 努力하고 이를 推進하기를 期한다.

在日韓國人 그리스도人은 和解의 福音을 믿고 있음 으로 民族의 統一과 同胞가 融和 團結하여 가는 길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다. 따라서 永住權 獲得 運動이 政治的인 事情과 기타 理由로서 永住權이 付与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 極度의 差別을 가져 오는 念慮가 있음을 憂慮하

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基督教의 正義와 사랑의 立場에서 發言하여야 할 것 을 表明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人으로서 日本國家의 動向에도 깊은 關心을 갖고 國家方向을 模索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仲保의 祈禱를 드려야 될 줄 안다. 마침내 靖國神社 國營化 法案과 出入國 管理 法案이 오는 通常國會에 上程되리라는 消息을 들을 때에 過去 이 나라가 韓國을 비롯한 아세아 諸民族과의 關係에 있어서 가져 온 不幸스러운 歷史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특히 出入國 管理 法案이 在日外國人 그 大多數를 차지하는 在日韓國人의 基本的 人權을 保障하고 하나님 이 創造하신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를 保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積極 反對하며 어떠한 政治的·社會的 差別體制를 變革하는 것이 그리스도人의 使命임을 再確認한다.

우리는 지난 6월에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都市化

過程 속에서 韓國人 人口가 가장 集中되어 있는 大阪에 「地域센터」(KCC)를 建設하기로 決議했다. 莫大한 財源과 人材를 動員하는 이 大業도 우리 가 사는 地域社會에 責任 있는 參與를 해 나가자는 行動의 一環으로 보고 積極 推進할 것 을 期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무 리이지만 예수·그리스도가 歷史의 主役임을 믿고, 이 時點、在日韓國人의 놓여 있 는 어려운 狀況 가운데서 부르시는 主님께 應答하여 福音宣敎와 社會를 섬기는 使命을 지고 나갈수 있도록 主님의 도우심을 빌면 서 在日韓國人 61萬과 합 께 앞날을 向하여 보다더 創造的인 歷史形成을 이룩 할 것 을 表明하는 바이다.

1970年10月15日

在日大韓基督教會 第26回總會 總會議員一同

## KCC 건설 위 한

카나다 자매교회의 큰 물선

11월4일 일본을 찾은 카나다장로교회선교부총무 존 손박사와 선교위원장 존스 돈박사는 과거35년간의 선교책임을 빛나게 감당하여 온 재일대한기독교회에 대하여끝없는 선교의 열성과 뜨거운 우정을 전달 하면서 이번 총회가 건설 하게 된 KCC회관건설기금을 돕기 위하여 3만불 (일화·일천30만원)을 큰 선물로 우리에게 전하였다. 이 귀한 선물은 캐나다장로교회가 재일6(만)한국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과 재일한국인의 모든 문제를 재일대한기독교회와 공동책임으로 함께 감당 하겠다는 진지한 선교적책 임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이다. 일본에 사는 사랑 하는 동포여 앞으로 어떻

게 사라는나? 어떻게 이겨나가는나? 우리와 함께 살자 고생도 슬픔도 함께 감당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짖임 뿐만아니라 캐나다교회의 진정된 형제의 부르짖는 소리로 들려 온다. KCC건설 KCC生野지역활동은 실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일생의 무거운 짐이다. 캐나다교회가 보여 준 그 성의와 아름다운 우정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과 활동으로 부답하여야 할것이다.



여전도회12월 월례 회를 위 하 여

## 영 혼 의 양 식

세 례 요한을 생각하 며

(마태 11:2~11:3:1~12)

11월29일부터 대장절 (Advent)、곧 예수님의 나 짐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시기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나타나 못 영혼들의 마음을 일깨운 세례요한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나라에 그 많은 예언자의 소리가 그치지도 이미 400余年이 되었습니다 전종과 교련만 알고 공의와 사랑을 모르는 제사장들 성경의 문자만 알고 정신을 모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굳어진 마음으로 위대한 종교를 능략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홀연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우뢰처럼 요단강 끝짜기에서 울려왔습니다 「죽음의 나라」를 상징하는 유대광야는 요한을 몰아서 하늘의 탐색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의 정신이 광야를 거니는 외로운 젊은 이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2) 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의 영감을 통하여 지난 일에 대해서는 역사의 장엄한 해석자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공의 (公義) 의 용감한 선포자였고 미래를 향해서는 메시아시대의 밝아오는 예명을 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자랑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그들은 그 혈통을 자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 비추인 이스라엘역사는 혈통이상이었으며 민족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너희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 나님은 이 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려낼수 있다 고 외쳤습니다 「하 나님은 역사보다도 혼을 구하신다 공의와 사랑이

말파까지 창조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동물적인 혈통이 무슨 역사가 될것이나」 하고 그는 고향했습니다 윤리적인 품격이 색여지지 않은 국민이 무슨 역사를 자랑할 것이나 하늘로서의 높은 소명 감없는 민족이 무슨 목표로 나라를 이룩할 것이나 이스라엘아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목적을 향하여 네 역사를 해석하라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요한의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을 때 민중들의 마음은 요한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대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3:15) 실로 세례요한의 청량한 성격과 진리에 대한 열의와 용기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경건한 생활을 보고 민중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회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네가 누구냐」 고 했습니다 (요한1:19) 이 무름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이 또한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예민한 통찰력을 지닌 요한이 그 질문의 뜻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나 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도로써의 고귀한 모습을 찾기에 족한 대답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일의 분을 확실히 자각하고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진실로 오늘의 교계와 국가사회에 이러한 일군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책임과 실력에 대한 반성없이 명예욕에만 급급하여 왔는지요…… 다시금 세례요한의 고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봅시다

예수님은 요한을 평가하기를 다음과 같은 극적인

표현으로 그를 칭찬 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의복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궐안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마태11:7~9) 요단계곡은 언제나 갈대들이 무성 하였습니다 그 갈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갈대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인기의 바람을 따라 요동 되는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덕스러운 유행에다 그의 진리를 장식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첨꾼이나 안일의 추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과연 궁궐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부드러운 의복을 입고 화려하게 앉 어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용감한 진리의 말 때문에 궁전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기전부터 성별함을 받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 습니다 마른 머뭇기를 석청에 적어먹고 약대일에 굶은 배움을 입은 야인이었습니다 천만금이 그를 사지못했고 모든 명예와 찬란한 법복도 그에게는 한것 속물에 지나지 않았 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 하는 관공리는 물욕 때문에 공무를 굶히지 않는 사람이요 참으로 세상을 구원 하는 일에 나선 자는 세상에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가 전도 자란 현세적인 정욕에 물 들지 않은 사람을 만합니다 속물에게 교회가 마개 지고 속물에게 나라가 마개 지는 때 그 앞에는 과일이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에 집착이 없었기때문에 진정으로 용감 하였습니다 못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 고 외쳤으며 누구에게나 감히 손을 들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련 (敎權) 의 상좌에 앉은 자도 속권의 왕좌에 앉은 자도 《독자의 종류들아!》 하는 책망을 듣고 스스로 떨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 볼때 우리는 얼마나 의인을 비관하고 정신적 잔학을 감행하는데 그 입이 날카로웠는지요 따라서 참으로 추상 (秋霜) 같이 불의를

책망하고 의인을 변호하는 데는 또 얼마나 비겁 하 였는지요……

이 같이 세상을 향하여 용감한 그는 하나님앞에서 는 너무나도 겸비 하였 습니다 예수님앞에서 그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 이라고 스스로 고백 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앞에서 그렇게도 겸비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그 같이 용감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일러 「광야에 외치는 소리」 라고 하였 습니다 소리는 들을수 있어도 볼수노 만질수도 없 습니다 과연 그는 자기를 위하여 공간을 점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서 머무를 자리가 없었 습니다 참으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였으며 그 소리조차도 바로 들어줄 자가 몇이나 될지……알수 없을 정도 였 습니다 그대도 이 광야의 소리야말로 가련한 죄인들에게 살길을 열어 주는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이에게는 참 축복이 있었 습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갔으므로 땅에서 물려 오는 유혹과 위기를 이길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에 마음을 움지이지 않은 요한은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요한3:26~30) 하는 이야기로써 자기의 인기몰락의 보고를 들어도 또한 그의 마음은 태연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 이라는 확고한 의식으로 일관한 그의 삶의 태도를 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주는 자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던 그는 그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다만 신랑의 들러리로서 결혼이 끝난때 자기의 처신을 바로 할수 있었 습니다 이 얼마나 매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입니까! 「그는 종해야 하고 나는 쇠 하녀야 한다」 고 솔직하게 느끼고 말하고 말한대로 실행 하였습니다 내가 종해야 하고 그는 쇠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서로 다투며 나라를 세운다 하는 이들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나서는 사이비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요한의 태도에서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하겠 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혹이 요한의 마음에 찾아 왔 습니다 그가 헤롯왕의 불운을 책망한 연고로 옥중에 있을 때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민족의 심중에 뿌리박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상이 머리를 들고 이러났 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일 기대던 메시아라면 혹시 기적으로 자기를 옥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텐데 소식이 없다는 생각이 솟아올라 마침내는 그리스도에게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민족의 사상은 확실히 자기욕망을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필연적으로 기적을 바라게 되고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며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과 원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그 제자를 보냈 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 방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놓고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 하였습니다 (마태11:2~9) 요한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구출 되는 것으로써 그리스도의 진위를 판정 하려던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고 전 인류의 구원이 성취 되는 것만을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효려지려던 마음에는 불이 켜지고 그가 간처 있던 감방은 새로운 세계로 변 하였습니다 요한은 다만 그 감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심정으로 회열을 느끼며 조용히 순교의 길을 택 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메시아의 선구자된 자기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 바쳤 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약400년 기록에 위대한 종지부를 찍고 시대의 회리바람에 쏘여 천성으로 향하여 갔 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영원한 태양이 떠올랐 습니다 세례요한은 진실로 하나님나라의 선구자요 세기의 예명을 깨워이르킨 하늘음악의 서곡 그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친 소리 였 습니다

# キリストの遺産と組織

マタイ27:32~44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1. 田舎者という言葉は人々からかう時に使う言葉であるが、クレネ村より来たシモンというこの田舎者は、多くの都会人エルサレムの人々の中に混って死刑囚イエスが刑場まで十字架を背負って行くのを見物していた(ルカ23:26)が、田舎者であることがすぐあらわれ馬鹿にされて死刑囚イエスの十字架を背負って刑場まで登った(マルコ15:21)。この無視された田舎者がこれを機会にイエスを信ずるようになり(行13:1)、後になって世界の大会ローマ教会役員になり、その妻は執事として大牧師パウロの母と慕われるような立派な信仰の奉仕者一家となった(ロマ16:13)。弱い者といわれていてもその弱さの中に強さを与えるのが神の力である(第2コリ12:10)。

2. 主イエスが伝道に熱心であった時に身内の者は彼は気が狂っていると取り押えに来たのである(マルコ3:21)。このような無理解の兄弟達は長兄イエスが死んだ後も母マリヤを兄の代りに世話せずに他人であるヨハネがその面倒を見たのである(ヨハネ19:25~27)。このように親戚の者から見放されて、十字架にかけられて死んだその死体を引きとったのも親兄弟でなく他人であるアリマタヤのヨセフであった(マタイ27:57~60)。主に従った多くの信者達も奇蹟を行う時とか慰めの言葉を、又は自分たちの気に入るような時には主に従ったが(ヨハネ6:10)、神の真理を語り十字架への予言をすると4,500名も集っていた者たちが去って再び彼に従って来る者がいなかった(ヨハネ6:66)。

3. 12弟子であるイスカリオテのユダはイエスを売り(マタイ26:14~15)、11人の弟子もイエスが捕えられると皆主イエスを見捨てて逃げ去ったのである(マタイ26:56)。イエスの遺産としてあるのは十字架であり嘲弄であった。彼の着た服でさえもくじにして兵士たちがぶんどった(マタイ27:24)。それでは地上に教会を建てる夢をもって組織した弟子の群も逃げ去って今はイエスの弟子としての群

はなくなった(ヨハネ21:3)。このように十字架の死と共にすべてをなくした。イエスが復活と共に弟子は集り(ヨハネ20:19~29)、兄弟ヤコブは入信してエルサレム教会の

柱的存在であった(ガラテヤ1:19)。今日遺産のないキリストの群が7億にもぼ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ゼロの遺産より出発した群として2000年の輝かしい歴史の聖徒である。

## 「修養会に参加して」

### について

この度、この紙上に掲載された記事の為に、少なからぬ争議の種となったことに対して、心痛く思い、且つ、反省する次第である。この記事が、将来を目ざす建議案を審議すべき貴重なる第26回総会の席上に於て、図らずも取りあげられ、尊い時間のロスを招いたことは心苦しい思いであった。更に、一世の代議員たちに、深い深い不信を植えつける結果になったことに対して大なる責任を感じた。

10月14日(水)、15日(木)の二日に互る総会を終えた翌、16日(金)午前10時より青年局会が持たれた。局員8名、全協代表者3名が出席した。この席上に於ても、長時間に互る討議の結果、反省の要請が為された。そして、最も重要なポイント、分れ目が浮彫にされた。そして、もうこれ以上、争議する必要はなくなったのである。それは、我が論争するのは、いつも、破壊する為ではなくて、前に向かって建設して行く為だからである。青年局も、全協も、協力すべき所は協力し、これからは、いろいろな良きプランを通して、共に手を取り、又連絡し、自主を認めつつ、やって行こうではないかという、前向きの姿勢になったからである。それだから、来年の修養会には、安心して、息子、娘達を送って欲しいと要望するものである。これ以上、青年活動や修養会に不信を抱かないで欲しいと心から願うものである。教会に属し、その精神に生きる者は、誤りに対しては(先づ自分を省みるべきだが)否と云いうるし、云ってやるべきだし、云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今という時にあって、この精神はどうしても必要であり、もっともっと養っておく必要に迫られているのである。

我々は、こんな内部的なことに今の時を費している時ではない。これも大切なことと信じている。しかし、これよりも、もっともっと重大なことが押し寄せようとしている。『靖国神社法案』、『出入国管理法』等、我々の先が案じられてくる。我々は一体これでいいのか?歴史は繰り返すものなのだろうか?又、過去の誤りを日本国は繰り返そうとしてはいないと云えるだろうか?長年貯え、鍛え上げて来た軍隊はムズムズしており、日の目を見ようと、ありし日の日々を追憶し乍ら今か今かと待ち構えているかのようである。

いろいろな拘束を強いる法案が待ち構えていて、国民の一番、無関心な時、つまり、他のものに一番よく気をとられている時に押し通そうとしているかのごとくである。それらの通った暁には、一体誰が戦うというのだろうか?大部分の教会員達が、信仰を捨て、裏切り、友情の絆を絶ち切り、最後まで抵抗し、悲鳴を上げ、血を噴き出して友を遠ざかり、無視して了う時が又、来るというのだろうか?神社参拝を拒絶して、憲兵隊に拷問を受け、血を流し乍ら自殺して行った若き青年牧師が北海道にいたことが、一未信者の献身的な努力によって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われている。何だか『殉教者』や『沈黙』と相通ずる感がある。信者達はあの牧師を見捨てたし、彼の悲鳴を聞いた信者も信仰を失っ

て、群れの中に姿をくらししたのであるが、終戦後、再び信仰をとり戻したという。この歴史上に於て、一体誰が殉教者となるのか?一体どういう人間が十字架を負うて、あのカルバリーに向かって一歩一歩血を滴らし乍ら進んで行くのか?これは神の御手にあり、神のみが御存知であると思う。その時が来ると、我々が否、私が裏切り者となるかも知れない。それ故にこそ一層、固い信仰に鍛えられつつ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我々在日60万人の中に、具体的関りを持った信仰に生きる良きサマリア人、十人がいればいいのである。この十人さえ居なくなる時はどうなるのであろうか?

私は敢て、闘争的人間を好む。それも但し破壊的でない

く、創造的人間をである。何故なら、彼らの中に慎剣なる者が多いからである。30年、50年、100年後には、在日60万の程んどが同化過程が極度に進んでいる状態にあるかも知れない。しかし、その大きな流れの中にあり乍らも、民族的主体性をもって、最後まで貫き通して生きる者も若干いるかも知れない。彼らは自分の力によらず、萬軍の主と共に歩む者であろう。「たとえ我、死の陰の谷を歩むとも、恐れることあろうか」と唱えうる者である。それ故に、我々の任務は、この尊い信仰を子孫代々に至るまで伝えて行くことである。我々が滅びても、エッサイの根よりメシヤを起し給いし如く、神の国は永遠に続くであろう。(岐阜教会牧師 金承俊)

## 不二綜合出版への抗議文

妹尾活夫

貴社発行の「家」11月号の「韓国、済州島の巻」は、済州島の土地がベラボーに安いとし、極めて手のこんだ購入法まで紹介、宣伝し、全文をめぐって貧しい農民、漁民の気持ちをよそに、彼らの土地を喰いものにしようという気持ちが全文にみみぎ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これでは貴社の意図するところがどうであろうと、韓国に対する侵略思想の宣伝であると判断せざるを得ず厳重に抗議する次第であります。現に在日韓国、朝鮮人61万人の中の大阪に在住している同島出身者の人々からも強い問題指摘がありました。今一度反省され、自発的に発売を停止され謝罪と訂正を公けにされるよう要望する次第であります。

今後アジア諸民族の生活権を侵しつづけてきた日本人の一人として、韓国、中国人その他の人々の悲しい過去の歴史、苦しい今日の実態、多くの困難が予想される未来に関心をもち、侵略、排外思想の宣伝、鼓吹に従事することのないように、今後の取材、編集に留意されるように要望する次第であります。

なお、加えて次の三点につき御意見を伺いたくお尋ねいたします。

(1)日本公害の避難方法として、旧殖民地韓国の済州島にセカンド・ハウスを建て、そこを足場にしてボロ

もうけしようとする考え方は、道義的に極めて悪質であり韓日友好の精神に反するように思いますが、如何お考えでしょうか。

(2)土地入手方法として「韓国籍を持っていないとできないので、知人を頼り、信用できるコネ探し」(38頁)を強調、「わるい人と組むと、土地の名義は先方にあるのだから……」(38頁)ベテニ師に引っかからぬ様にと、か、「日本となんらかの取引のある人々に出資し、その担保物件として土地を押える」(38頁)という手口は、韓国併合時に日本の土地会社が行った掠奪方法で、今日の韓国、朝鮮人を侮辱し、再侵略の宣伝をくりひろげ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如何でしょうか。

(3)「別記」にのべますように内容として事実と反したものが多く、外国紹介に対するマジメさと慎重さが欠け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また如何なる資料が使われたでしょうか。以上について貴意をお聞かせくださいます様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

(在日外国人の人権を  
守の会 代表)

(関連記事4面へ)

# 声 明 文

在日大韓基督教会 第26回総会に参集したわれわれ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召しを受け、日本社会で福音を証している。

今日、日本の特殊な社会状況の中で、在日韓国人61万民族が、将来の方向を模索しているこの時にあたり、われわれは最近おこりつつある事態に深い関心を寄せつつ、以下のごとく、われわれの社会的責任に関する態度を表明するものである。

1968年 われわれは在日大韓基督教会宣教60周年を迎え、「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なる標語をかかげこれを記念してきた。この標語が意味し志向しているところは、過去われわれの教会が歩んできた歴史を導き給う神の摂理のみ業を感謝しつつ、われわれの宣教の基本的姿勢が福音信仰の帰結として、キリスト者は、その生きている社会に変革をもたらすべき責任ある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ことにある。われわれは、今日まで歩んできた過去を反省する時に、社会においてキリストを信ずる者として、ふさわしい証しの生活をなしえなかった怠慢を卒直に告白する。

今まさに、在日韓国人61万同胞はそれぞれの政治的立場に立ち、永住権獲得、国籍変更運動等を展開しつつ、将来の道を模索している。われわ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は、61万同胞がこの国に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歴史的背景と、同胞がいかに多くの血と涙を

流してこの社会で犠牲となり、また貢献してきたかを顧みる時に、永住権は、在日韓国人61万のだれかれを問わず付与されるべき正当な権利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と同時に、この付与されるべき永住権が、在日同胞の要求する内容に合致するものになるよう積極的に努力し、推進することを期するものである。

われわれ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は、和解の福音を信ずる者であるが故に、民族の統一と、同胞が一致団結し前進する方向に深い関心を寄せている。したがって、永住権獲得運動が、政治的事情その他の理由のために、その権利を与えられずにいる同胞達に極端な差別がもたらされるであろう事態を憂慮し、このような事が起らぬようキリスト教的正義と愛の立場から発言すべきであることを表明する。

われわれは、この国に住むキリスト者として、日本国家の動向にも深い関心を抱き、歩むべき方向を模索しているこの国のためにとりなしの祈り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特に現在、靖国神社国営化法案と、出入国管理法が次の通常国会に上提されるかも知れないとの消息を耳にする時、過去、この国が韓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の諸民族との関係の中で持ってきた不幸な歴史が、再びくりかえされぬよう切に願わずにはおれない。

ことに、出入国管理法が、在日外国人とその大多数を占める在日韓国人の基本

的人権を保障し、神により創造された人間の尊厳性と自由を保証しないならば、われわれはこの法案に全面的に反対すると共に、政治的・社会的でないかなる差別体制をも変革していくことこそ、キリスト者の使命であると再確認するものである。

われわれは去る6月に臨時総会を開催し、都市化過程の中で在日韓国人が最も多く集中している大阪に、「地域センター」(KCC)建設を決議した。莫大な財源と人材を動員するこの事業も、われわれが住んでいる地域社会に対し責任ある参加をしようとする

る行動のひとつと見て、積極的にこれを推進するものである。

われわれは、まことに小さな群であるけれども、イエス・キリストが歴史の主でありたもうことを信じ、この現時点、在日韓国人同胞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まただ中で、われわれを召したもう全能の主に応答していくとともに、福音宣教と社会に仕える使命をおび前進できるようにと、主のみたまを祈りつつ、在日61万同胞とともに未来に向けてさらに創造的な歴史形成をなさんことを表明するものである。

1970年10月15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第26回総会  
総会議員一同

## 不二綜合出版社の 抗議文の資料

3頁より

「家」11月号の「済州島の巻」の内容上、疑わしい点  
(1)「総面積……182,957km<sup>2</sup>、人口……330,752人」(39頁)とあるが、道庁発行「統計年報」(1969年2月)では、181,957km<sup>2</sup>、105人となっているが、如何。  
(2)「船で……下関ー釜山21時間、釜山ー済州島1時間ちょっと」(37頁)とあるが、実は前者7時間位、後者12時間位と思うがどうか？  
また「飛行機で……大阪ー板付ー済州2時間」(37頁)とあるが、時間表による一例をとると、大阪発14:40ー済州着18:30で3時間50分になり大変なちがいでこれについては如何。  
(3)「……年中あたたかい。まず、暖房の設備がどうの、オ

バーコートがどうのと心配することはない」(37頁)とあるが、北半分には全然あてはまらない。冬の暖房、オーバーコートの必要を考えるが、如何。  
(4)「サザエ・ウニなど、現地の人々はあまり食べないのでそれこそ十分もあちらに替り、こちらに替りしていれば、カゴ一杯とれる。魚もバカにとれる。同じ海で、同じ漁をして収穫がちがうぜいたくさは全くこたえられない喜びだ」(37頁)と景気の良いことを言っているが、今日でも日本漁船の乱獲の影響を受け、漁民は生活苦になやまされ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と思うが如何。また現地人はサザエやウニを大いにたべるときいているが如何？

(5)現代の話として、「済州島で『坪30円』の土地はそんなに悪いところではない。海辺から車で20分ぐらいいかかるが、なだらかな平坦地で見晴しもよく……ホントに坪30円とビックラさせられたのだ。……済州島の地価はどんなに高くても日本円に換算して100円だそうだ」とあるのは疑わしくないだろうか。こちらの調べでは市内で60~70万円のところもあるとのこと、如何。

(6)土地入手に関して色々な方法を紹介し「……比較的簡単にコト運ぶ」(38頁)とあるが、島民にとって、外国人から土地を守ることが生活を守ることだとの意識が強いので、今日そう簡単に官庁が許可しないし入手は困難であるのが現状と思うが如何。  
〔※ なお、こちら側の資料は、大阪・在日済州親睦会より入手〕

## 和 解 (日本語版)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発行誌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権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

一部20円で申込んで下さい。

東大阪市南荘町9-18  
枚岡教会内



印刷は

僑 文 社

716-5046



##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電話大阪 (06) 341-2162